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3권 19편 예정 1 · 영원한 선택

제3권 제21장 1-8절 (전체 61편 중 44편)

? 같은 복음을 들어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데, 그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라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흐름 한눈에

칼빈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해지지 않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서로 다릅니다. 칼빈은 이 차이의 뿌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세 가지를 준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값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고, 사람을 겸손하게 하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줍니다. 이어서 두 극단을 함께 물리칩니다. 하나는 호기심으로 성경 너머까지 파고드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하다며 아예 입을 닫는 사람들입니다. 칼빈의 원칙은 “성경이 말하는 만큼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입니다. 그다음 예지와 예정을 구분해 정의하고, 선택이 세 단계로 점점 좁아지며 드러난다고 보여 줍니다(이스라엘 민족 전체 → 아브라함 가문 안의 구별 → 그리스도 안의 개인).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선택은 값없는 공흠에 근거하고, 버리심은 공의롭지만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판단에 근거하며, 부르심과 칭의는 선택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절별 정리

예정 교리에 대한 서론적 논의. 1-4

 1. 예정 교리의 중요성과 위험 요소

← 3권 18편

PDF

3권 20편 →

칼빈은 관찰에서 시작합니다. 생명의 언약, 곧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해지지 않고, 들은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이 차이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무리 가운데 누구는 구원으로, 누구는 멸망으로 정해졌다니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합니다. 칼빈은 바로 그 불편한 지점에서 이 교리의 유익이 나온다고 답합니다. 첫째,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둘째, 참된 겸손이 생깁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막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신자들에게도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예정을 따지는 일은 하나님 지혜의 거룩한 영역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열어 주신 만큼만 가야 한다고 경고하며, 두 부류의 사람(지나치게 캐는 사람과 아예 입을 닫는 사람)을 먼저 다루겠다고 예고합니다.

1. 복음 전파와 반응의 차이는 선택에서 비롯됨
2. 유익 ①: 구원이 값없는 은혜임이 분명해짐
3. 유익 ②: 사람을 겸손하게 함
4. 유익 ③: 그리스도께 맡겨진 자는 안전하다는 확신
5. 단, 예정 탐구는 하나님 지혜의 성소 출입

로마서 11:5-6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함 받았고, 행위가 끼면 은혜가 아니다. 선택이 은혜를 증명함

⁵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⁶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28-29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신 자는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확신의 근거

²⁸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²⁹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 예정 교리는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탐구해야 함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4~5세기 교부)의 말로 문을 엽니다. 믿음의 길을 지키며 계속 자라야 하지만, 지금 다 알 수 없는 것이 있고, 그것은 마지막 날에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근거로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듭니다. 칼빈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알려 주는 유일한 길과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성경 밖에서 예정을 알아내려는 것은 길 없는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주제에서 모르는 게 있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는 사람답게 모를 줄 아는' 영역입니다. 칼빈은 꿀을 지나치게 먹으면 해롭다는 잠언의 말씀으로, 지식욕 자체를 위한 탐구를 경계합니다.

1. 말씀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빛
2. 말씀의 경계를 넘으면 어둠 속 방향
3. 모르는 게 있어도 부끄럽지 않음
4. 지식욕 자체를 위한 탐구는 위험

요한복음 16:12

(아우구스티누스 인용) 제자들도 지금은 다 감당 못 함. 앞에는 때가 있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욥기 12:24

(참조) 길 없는 거친 들에서 헤매는 모습. 말씀 밖 탐구의 비유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잠언 25:27

꿀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음. 호기심으로 영광을 구해도 영광이 아님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 문제야말로 유식한 무지가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예정 교리에 대한 침묵은 부당함

반대쪽 극단도 있습니다. 위험을 막겠다며 예정을 암초처럼 피하고 아예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칼빈은 신중하려는 그들의 태도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쉽게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법은 말씀으로 돌아가 거기서 생각의 기준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학교'입니다. 알아야 할 것과 유익한 것은 빠짐없이 가르치고, 유익하지 않은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예정에 대해 알려 준 것을 감추면, 신자가 받을 복을 가로채는 셈이 됩니다. 또 쓸데없는 것을 기록했다고 성령을 비난하는 셈이 됩니다.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는 귀를 열고, 하나님이 입을 다무시면 우리도 멈춥니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는 잠언을 모든 일에 덮어씌우면, 신중함을 핑계로 짐승 같은 무지에 만족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1. 침묵파의 신중함은 좋지만 효과는 없음
2. 성경은 성령의 학교: 유익한 것은 다 가르침
3. 성경이 말한 것을 감추면 복을 가로챈
4. 하나님이 멈추시는 곳에서 멈춤
5. 잠언 25:2를 만능 핑계로 쓰지 말 것

잠언 25:2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 다만 모든 문제에 무차별로 적용하면 안 됨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신명기 29:29

감춰진 일은 하나님께, 드러난 일은 우리에게. 이 편 전체의 경계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4. 예정 교리가 위험하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

“불경한 사람들이 예정을 꼬투리 삼아 조롱한다”는 반론에 칼빈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이유라면 삼위일체도, 창조도, 하나님의 예지도 다 숨겨야 합니다. 조롱하는 사람은 어떤 교리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칼빈 당시에는 세상이 창조된 지 오천 년 남짓이라는 이야기도 그런 조롱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힘이 있으니 악담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견인의 선물』을 근거로 듭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교리를 비방해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예정을 너무 거리낌 없이 설교한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 비난을 쉽게 물리쳤다고 합니다. 칼빈은 최소한의 합의를 요청합니다. 감춰진 것을 캐면 '호기심의 죄'이고, 드러난 것을 무시하면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성경은 어머니가 아이 걸음에 맞춰 걷듯 우리 속도에 맞춰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연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질까 봐 예정을 묻어 두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위험을 미리 보지 못하셨다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과 같다고 칼빈은 지적합니다.

1. 조롱 때문이라면 모든 핵심 교리를 숨겨야 함
2. 진리에는 힘이 있다
3. 두 죄를 피하라: 호기심, 그리고 배은망덕
4. 성경은 어머니처럼 우리 걸음에 맞춤
5. 예정을 묻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탓하는 것

성경의 증거: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직접 인용 구절 없음)	아우구스티누스 『견인의 선물』 과, 3절의 '감춰진 일/드러난 일' 원칙에 기댐

5. 예지와 예정,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택

칼빈은 먼저 두 용어를 구분합니다. '예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늘 눈앞에 두고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도 미래도 없이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그것도 머릿속 기억처럼이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 놓인 것처럼 보신다는 뜻입니다. '예정'은 각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정하신 영원한 결정(작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영생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영원한 정죄가 미리 정해졌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반대자들은 “하나님이 누가 믿을지 미리 보시고 그에 따라 정하셨다”며 예지를 예정의 원인으로 봅니다. 칼빈은 둘 다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답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택을 첫 증거로 듭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던 아브라함에게서 한 민족을 택하고 다른 민족들은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수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거듭 말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선택을 사람의 가치나 공로에 묶으려는 주장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시편과 선지서는 이 값없는 선택을 감사와 소망의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도 선택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 예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현재
2. 예정: 각 사람의 운명을 정한 영원한 결정
3. 예지를 예정의 원인으로 삼으면 안 됨
4. 이스라엘 선택의 이유는 사랑뿐
5. 선택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의 근거

신명기 32:8-9

하나님이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야곱을 자기 몫으로 택하심

⁸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⁹여호와와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신명기 4:37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신명기 7:7-8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다만 사랑하셔서 택하심. 공로설 반박의 핵심

⁷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⁸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신명기 10:14-15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 그중 이 백성을 택하심. 선택의 자유

¹⁴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¹⁵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신명기 7:6

하나님 기업의 백성이니 거룩해야 함. 선택에는 책임이 따름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23:5

하나님이 백성을 지키신 이유도 사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시편 47:4

신자들이 선택을 찬송으로 고백함

출애굽기 32:9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격이 없었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뺏뺏한 백성이로다

신명기 9:6

(참조) 너희 의로움 때문이 아님. 자격 없음의 재확인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모스 3:2

(참조) 선지자가 선택받은 사실을 근거로 백성을 책망함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시편 100:3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 '우리 자신'의 공로를 배제함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95:7

(참조)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105:4-6

택하신 야곱의 자손에게 하나님만 구하라고 권함 (원문 표기는 105:4-5)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진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시편 44:3

땅을 얻은 것은 자기 칼이 아니라 주의 손과 기뻐하심 때문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시편 33:12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음. 감사의 근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무엘상 12:22

기뻐서 자기 백성 삼으셨으니 버리지 않으심. 소망의 근거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시편 65:4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의 복. 믿음이 흔들릴 때의 무기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사야 14:1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심'.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로 선택이 확증됨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스가랴 2:12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심. 버림받은 것 같아도 선택은 불변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6.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선택

칼빈은 두 번째 단계, 더 좁은 선택을 다룹니다. 같은 아브라함 가문 안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빼고 어떤 이들을 남기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똑같이
할례를 받았지만 제외되었습니다. 이아 에서가 제외되고, 사울이 제외되고, 결국
이스라엘 자손 대다수가 제외됩니다. 반대로 부르심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칼빈은 공정하게 인정합니다. 이스마엘과 에서가 빠진 데는 그들 자신의 불신앙, 곧
언약의 조건을 어긴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그들을 다른 민족보다
우대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똑같이 나눠
주셔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고르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은혜가
값 없다는 증거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말라기는 이 점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장자 에서 대신 동생 야곱이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 후손은 두 배로 감사해야 했는데
오히려 두 배로 배은망덕했다는 것입니다.

1. 아브라함 가문 안에서도 선택과 제외가 있음
2. 이스마엘·에서·사울은 제외, 이삭·야곱은 부르심
3. 제외된 자들의 불신앙도 칼빈은 인정함
4. 은혜가 고르지 않음 = 은혜가 값 없다는 증거
5. 받은 은혜가 클수록 감사의 의무도 큼

⁶⁷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⁶⁸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시편 147:20

다른 민족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으심. 이스라엘이 받은 특별한 은혜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말라기 1:2-3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함. 형제 사이의 선택과 이스라엘의 배은망덕

²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³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로마서 9:13

바울이 말라기 구절을 선택의 증거로 인용함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입증해 준다.”

7. 개개인의 선택

민족 단위의 선택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많은 자가 썩은 가지처럼 떨어져 나가습니다. 그래서 꼭까지 서 있는 서태의 비려며

떨어지지 않습니다. 민족 전체의 선택이 늘 효력을 내지 못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모두에게 즉시 중생의 영을 주셔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속은 그대로이고 겉으로만 변한 '중간 상태'가 생깁니다. 그래도 언약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하셨고,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자손 전체를 택하신 일은, 그중 일부에게 주실 더 큰 은혜를 미리 보여 준 '눈에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다만 칼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무익했다고 말하면 언약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또 독자들에게 관련 성경을 다 살피기 전에는 어느 쪽으로든 편견을 갖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1. 확실한 선택을 보려면 그리스도께로 올라가야
2. 그리스도의 지체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음
3. 언약 안에 있어도 겉만 변한 '중간 상태'가 있음
4. 민족 선택은 개인 선택을 보여 주는 그림
5. 그래도 언약 백성 됨은 헛되지 않음

로마서 9:7-8

(참조)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

⁷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⁸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16

(참조) 약속은 '한 자손', 곧 그리스도께 주어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로마서 9:13

말라기 구절로 '일부에게 특별한 선택'이 적용됨을 논증

말라기 1:2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민족 전체와 개인 모두에 해당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로마서 9:27

이스라엘 중 남은 자만 구원받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11:5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사야 10:22-23

(참조) 바울이 인용한 남은 자 예언의 원문

²²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²³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신명기 32:9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분깃'이라 부름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열왕기상 8:51

이스라엘을 '주의 소유'라 부름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시니

시편 28:9

이스라엘을 '주의 소유'라 부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33:12

이스라엘을 '주의 기업'이라 부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11:29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음. 남은 자 보존의 근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4:28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인 영적 자녀와 육적 자녀의 구별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8. 선택 교리에 대한 요약적인 정리

칼빈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문단으로 묶습니다. 성경이 보여 주는 대로, 하나님은 영원하고 바뀌지 않는 계획으로 누구를 구원에 받아들이고 누구를 멸망에 내어 줄지 오래전에 단번에 정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계획이 사람의 가치와 상관없는 값없는 긍휼에 근거합니다. 버림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의롭고, 비난할 수 없고,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판단으로 생명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부르심이 선택의 증거이고, 칭의는 영광에 이를 때까지 선택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표지입니다. 반대로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것이 그들을 기다리는 심판의 표지라고

가치도 없다고 넘깁니다. 진지한 학문적 반론이나 단순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할 만한 논리만 그때그때 다루겠다고 예고합니다.

1. 영원불변한 계획으로 구원과 멸망을 정하심
2. 선택의 근거: 값없는 공흠, 사람의 가치와 무관
3. 버리심의 근거: 공의롭지만 헤아릴 수 없는 판단
4. 부르심과 칭의는 선택의 표지
5. 진지한 반론은 뒤에서 하나씩 다룸

(직접 인용 구절 없음)

“성경이 분명히 보여 주는 대로”라며 5-7절의 구절들을 종합함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 부르심이 선택의 증거라고 간주한다.”

오해와 반론

용어

예정

하나님이 각 사람이 어떻게 될지 영원 전에 뜻대로 정해 두신 결정.

예지

하나님이 과거·현재·미래를 모두 눈앞의 현재처럼 보고 아시는 것.

작정

하나님이 영원 전에 내리신 결정. 예정은 그중 사람의 운명에 대한 작정이다.

선택(택하심)과 버리심

하나님이 어떤 이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 그리고 어떤 이를 그 은혜에서

원래 자녀가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것.

언약

하나님이 백성과 맺으신 약속의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남은 자

다수가 떨어져 나간 뒤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시는 소수의 백성.

중생

성령께서 사람의 속을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일.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이 바뀌는 것.

칭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유식한 무지

하나님이 감추신 것 앞에서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지혜로운 태도.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복음에 대한 반응의 차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서 비롯된다.
- 예정은 성경이 가르치는 만큼 배우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 호기심도 침묵도 답이 아니다.
-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 → 아브라함 가문 안의 구별 → 그리스도 안의 개인으로 좁아지며, 그 이유는 언제나 값없는 사랑이다.
- 은혜가 고르게 나눠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은혜가 값없다는 증거다.
- 이 교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겸손과 확신이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칼빈 『기독교강요』 (생명의말씀사)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